

진행된 간문부담관암 환자에서 편측 담도배액관과 양측 담도배액관의 효과 비교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내과

*이상훈 · 문희정 · 김경옥 · 이규형 · 이시형 · 박윤선 · 최재원 · 김태년

목적 : 진행된 간문부담관암 환자에서 주된 사망 원인은 폐쇄성 황달로 담도배액술은 중요한 내과적 치료이다. 지금까지 경피경간적 담도배액술 및 내시경적 담도배액술이 시행되고 있으며, 생리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배액관을 이용한 내적 담도배액술이 선호되고 있다. 내적 담도배액술은 배액관을 이용하여 편측 또는 양측으로 시행되어 지는데, 그 효과의 차이는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진행된 간문부담관암 환자에서 편측 담도 배액관과 양측 담도 배액관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대상 및 방법 :** 2001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간문부담관암으로 진단된 환자 중 Bismuth III형 이상으로 진행되어 수술은 받지 않고, 배액관을 이용한 내적 담도배액술을 시행한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환자는 편측 담도 배액관을 시행한 환자군(이하 1군)과 양측성 담도 배액관을 시행한 환자군(이하 2군)으로 분류하였다. 양군 간의 나이, 성별, Bismuth 분류, 총 빌리루빈 치의 감소, 조기합병증, 시술 횟수 및 첫 시술 후 재원기간, 배액관 평균 개통유지기간 및 생존기간 등을 비교하였다. **결과 :** 대상 환자 중 1군은 19명이었고, 2군은 31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각각 69.4세, 69.6세였다. 남녀는 1군이 각각 11명, 8명이었고 2군이 각각 19명, 12명이었다. Bismuth 분류로 보면 1군에서 III형 5명, IV형 14명이었고, 2군은 각각 6명, 25명이었다. 두 군 간에 연령, 성별, 원인질환, Bismuth 분류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평균 시술 횟수는 1군 1.8회, 2군 4.2회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00$) 첫 시술 후 평균재원기간도 1군 8.6일, 2군 11.6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07$). 총 빌리루빈은 1군에서 시술 후 1개월에 평균 9.1mg/dL 감소하였고, 2군은 8.5mg/dL 감소하여 두 군 모두 담도 배액에 효과적이었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시술과 관련하여 시술 후 30일내에 발생한 조기합병증의 이환율이나 사망률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배액관 평균 개통유지기간은 1군 224.0±32.1일, 2군 241.9±28.9일이었고, 평균 생존기간은 1군 303.9±43.7일, 2군 339.7±35.5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 진행된 간문부담관암 환자에서 편측 및 양측 배액관 모두 담즙 배액 효과가 우수하였으며, 비용-효과를 고려하였을때, 편측 배액관의 삽입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safety of observation of incidentally detected small pancreatic cyst

Department of medicine,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Hyun-Joo Suh, Kyu Taek Lee, Jong Kyun Lee, Jong Chul Rhee

Background : Improvement of imaging sensitivity has led to the identification of incidentally detected pancreatic cysts with increasing frequency. Most pancreatic cysts had been assumed to be cystic neoplasm. However, the risk of malignancy and consensus of treatment strategy has not concluded ye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ee the safety of observation of small pancreatic cystic neoplasm. **Methods :** Retrospective review was performed in 329 patients with pancreatic cysts from October 1994 to February 2007. 53 patients took surgical treatment at initial diagnosis. 276 patients with 277 pancreatic cysts underwent radiologic follow-up. **Results :** Mean follow up period of 276 patients was 26.3 months (SD±21.5/range, 1-138). Mean age of these patients was 59.3 years (SD,±12/range, 12-88). 61 patients(22%) had enlarging pancreatic cysts for 32.4months(SD,±27.5/range, 3-125). Mean size of enlarging pancreatic cysts at initial diagnosis was 2.2cm($p<0.05$). 25 patients(9%) were conducted operation for enlarging cyst or new appearance of internal solidity during follow-up period: 3(1.1%) cysts were identified to be malignancy and 17(6.1%) cysts were premalignancy. However, 19 patients(36%) got operation at initial diagnosis(53) were identified to be malignant or premalignant cyst. Pancreatic cysts more than 2cm intended to be increased compared with small pancreatic cysts(<2cm) (31.7% vs 17.9%, $p<0.05$). 14(17.1%) of cysts more than 2cm were revealed to be malignancy or premalignancy after surgical operation: vs 7(3.5%) of small pancreatic cysts(<2cm) were revealed premalignant cyst($p=0.06$). **Conclusions :** Cautious follow up of incidentally detected pancreatic cysts especially in small pancreatic cyst less than 2cm could be an effective way instead of initial operation. However, malignant evolution of small pancreatic cysts(<2cm) shouldn't be negligible. Key Words: incidental, pancreatic cyst, natural history